

아차산휴게소

Acha-san Rest House

류춘수 / (주)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
Designed by Ryu Choon-Soo

건축개요

대지위치	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산2-4 용마도 시자연공원 구의자구 내
주요용도	관광휴게시설
건축면적	116.00㎡(35.09평)
연면적	72.00㎡(21.78평)
건축규모	지상1층
구조	철골철근콘크리트조
내부마감	바닥-천연슬레이트석, 벽-무늬코트, 천장-목재후로링
외부마감	바닥-판석, 벽-인조석 천장-목재후로링
설계담당	김형주, 이재혁, 고광천
설계기간	1998. 6~8
공사기간	1999. 2~8
구조	나라구조
기계·전기	(주)맥&엔지니어링
시공	(주)현대건설
건축주	광진구청



중학교시절인가, 교과서에 실린 어느 수필에 나오는 아차산 호젓한 숲길, 그곳에 작은 휴게소를 짓겠다고 광진구청에서 의뢰가 왔을 때 먼저 그 수필이 떠올랐다. 구민들이 종일 애용하는 그 숲길 등산로의 중턱에 기존의 허름한 가게를 헐고 이 집을 지었다.

좁고 비탈진 땅에 스무 평 남짓한 휴게소를 어떻게 지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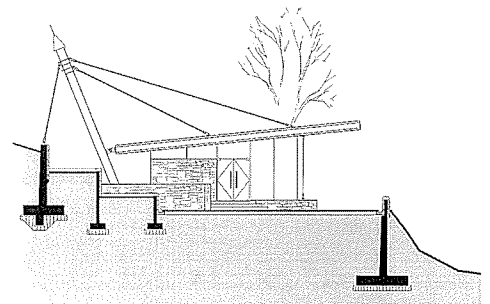
먼저 유리로 에워싸서 풍경과 합일하며, '날아갈 듯한' 지붕을 상상했다. 벽은 물론 작은 기둥조차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할 수 없을까? 이러한 생각으로 이 집을 만들었다. 뒤쪽 언덕에 고정시킨 케이블로 두 개의 비스듬한 마스트(mast)를 세워 지붕을 매어달고, 오히려 지붕을 받치는 대신 날아가지 않도록 밀로 당겨서 일상적이지 않는 구조물을 만들었다.

예산을 훨씬 초과했지만 이 설계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준 구청관계자와 시공회사에 정말 감사드린다.

1994년, 정도600년 기념행사를 위해 시청 앞 광장에 세웠다가 성수대교 참사로 행사가 취소되어 지금은 용산 기족공원에 옮겨 놓은 <하늘무대>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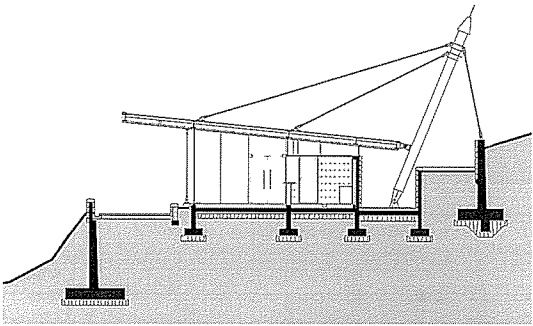
내부공간이 없이 하늘에 매달린 무대일 뿐이지만 처음 시도되어 완공된 텐설(tensile)건축이라 의미있는 구조물인데, 이렇게 <아차산휴게소>에서 평소에 시도하던 텐설건축을 완성하니 기쁘다.

<하늘무대>에선 투명한 유리바닥이 주제였다면, 이 휴게소는 투명한 벽이 목표였다. 건축은 그 구조미나 조형이 목표가 아니며, 그 장소와 쓰임을 위한 수단으로의 조형일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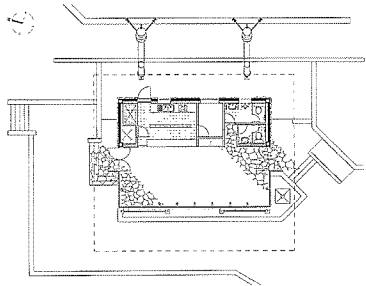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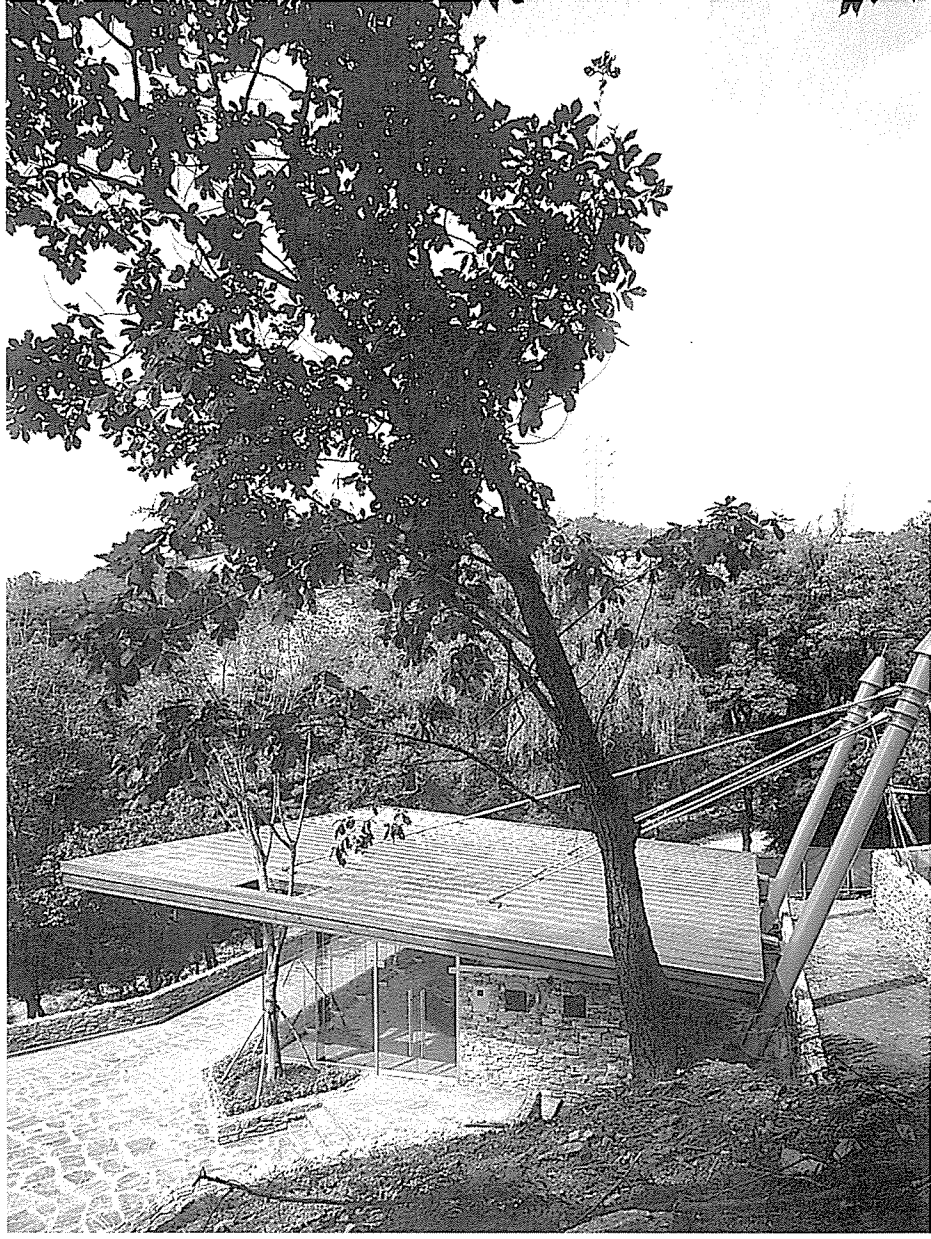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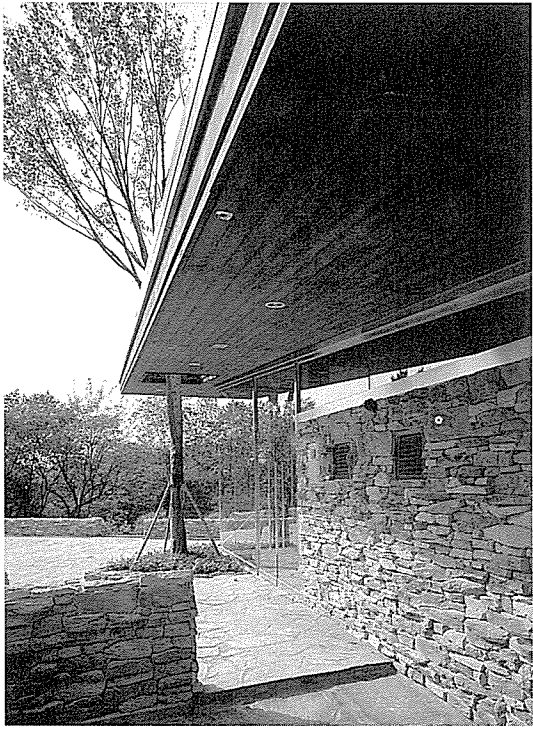


좌측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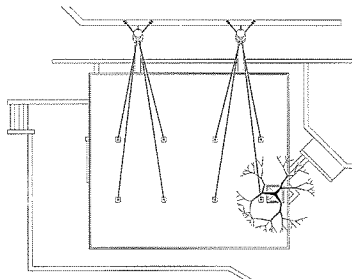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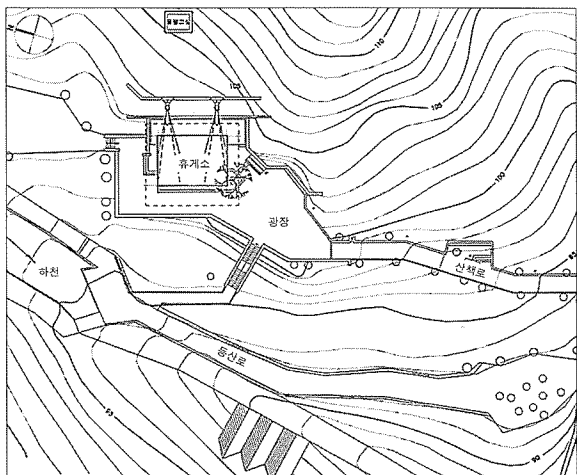
종단면도



1층평면도



지붕층평면도



배치도

